



# 포장폐기물과 환경에 대한 우문현답

## Packaging Waste and Environment

오늘날 우리는 포장없이 살 수 없다. 마트에 가면 포장지에 곱게 쌓인 화장품, 과자, 음료수 등 수없이 많은 제품을 마주한다. 살 때는 포장이 예뻐서 구입하지만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포장을 벗겨내는 순간 아름다운 포장은 포장폐기물이 된다. 일상에서 포장폐기물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포장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환경부는 문제에 대한 답으로 포장폐기물의 양적 저감과 질적으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 전환을 위한 법적규제를 제시한다.

포장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과대포장 규제정책이 있다. 제품의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에 대한 포장기준을 정해 제조·수입자에게 포장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법적 규제대상이 아닌 불필요한 포장부속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업체, 유통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선물용 과일에 두르는 띠지를 제거하는 실천협약 등을 체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포장폐기물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 바꾸기 위한 제도도 동시에 시행 중이다.

7월 30일부터 시행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에 관한 기준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는 6개 포장재를 대상으로 몸체, 라벨, 마개, 기타 자재 등 4개 항목별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총 3등급으로 구분하여 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과 포장업계도 정부의 정책을 준수하면서 자체적인 포장기술 개발에 나섰다.

특히 포장폐기물 억제정책의 성공을 위해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중요성을 알기에 환경부는 2011년부터 한국환경포장진흥원의 그린패키징 공모전과 친환경포장 인증사업을 지원하여 친환경 포장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한다.

병의 무게와 뚜껑의 길이를 최대한 줄여 업계 평균 대비 42%를 경량화 하는데 성공한 생수병, 봉합부가 쉽게 열리는 기능성을 가진 실란트 폴리에틸렌 필름과 충전 폴리에틸렌 필름의 두께를 줄여 연간 60t의 필름사용량을 절감한 제과류가 기업들이 포장과 환경에 대해 고민한 결과이다.

그러나 국민과 소비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과대포장으로 불편을 겪는다는 국민이 열에 아홉이고, 국내 과자의 과대포장 문제를 지적한 동영상도 유튜브에 올라간 지 4일만에 조회수 40만을 넘는 것은 과대포장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보여준다.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자극해야 한다는 이유로 화장품의 부피는 줄어들고 있지 않고, 색색깔 페트병이 출시되어 포장재의 재활용을 방해하고 있다.

앞으로 포장폐기물과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포장에 대한 기업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껍고 커다란 포장이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상승시킬 것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대신 신선한 디자인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디자이너 벤 허트리(Ben Huttly)의 대답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다. 그는 채소를 상품의 라벨과 포장지에 비닐대신 종이를 돌돌 말아서 묶어 포장했다. 그리고 종이 포장지에 들어간 라벨의 문구도 잉크를 사용하지 않고 레이저 커팅 기계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는 방식을 이용했다.

허트리의 포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포장지 속에 씨앗을 숨겨놓아 포장지를 땅속에 묻어두면 새로운 채소가 자란다. 시금치의 포장지를 버리면 시금치 씨앗이 자라나고 당근 포장 종이를 버리면 당근이 자라는 친환경 포장이다. 벤 허트리의 친환경 포장은 '포장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유쾌한 답변이다.

지금 우리에게 포장폐기물과 환경에 대한 현답이 필요하다. 허트리의 포장은 완벽한 현답은 아니지만 참신한 상상력이 현답을 찾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들의 재치있는 상상력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현답을 찾기를 기대한다. ☞

**신제품 및 업체 소개**

**월간 포장계 편집실**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